

광주·전남 대학 탐방

⑬ 조선대 선박해양공학과

# 해양산업 이끌 고급인력 양성 현장실무 교육 효과 78% 취업

“6명의 교수 전원이 산업체 현장에서 평균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갖춘 학자들이고, 30여개 산업체와 맺은 산학협력, 현장실무형 교육프로그램, 전체 학생의 40%가 장학 혜택을 받는 해양산업 분야 선두학과임을 자부합니다”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학과장 이귀주)는 2009년 졸업생 취업률이 78%에 이를 정도로 취업 잘되는 학과로 대내외에 알려져 있다. 취업생 대부분이 대기업의 정규직인 것도 자랑거리다.

## BK21·NURI 사업 통해 업그레이드 학생 40% 장학 혜택 해외연수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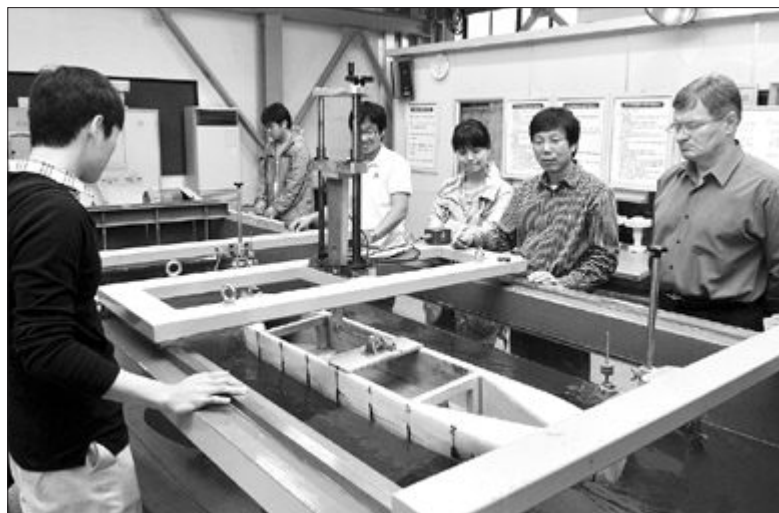
지난 1985년 조선공학과로 출발한 선박해양공학과는 BK21사업과 NURI(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학과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 기간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지원 사업비로 시설 장비구축은 물론 장학혜택, 해외연수 등 전공연수, 각종 학생 지원사업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귀주 학과장은 “BK사업과 누리 사업을 통해 학부·대학원 지원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이후로도 전산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융합실험실 등 첨단시설을 활용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선박공학과와 선박해양공학과는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교수진과 현장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 다양한 장학 혜택, 넓은 취업문이다. 실제 6명의 교수진은 평균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학자들이다. 80% 이상이 외국 유명대학(MIT, 일본 대판 오사카대학, 영국 Brunel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국내외 굵직한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30여개 산업체, 10여개 국외연구소·대학과 산학연구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현재 10여명의 학생이 유학이나 연수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수상 실적도 화려하다. 2008년 학생포트폴리오 대회에서 동상, 2006년에는 HPVF 설계부분에서

독창성상, 2009년 watch21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08년 제4회 창의적 미래형 선박콘테스트에서 대상, 2005년 HPVF 경주부분 장려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전체 40% 이상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는 등 장학금과 해외연



조선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학생들이 회류수조실험실에서 건조된 배의 성능을 검증해보는 실험을 하고 있다.

수, 과건 교육, 산업실습 등도 강점이다. 신입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입학금을 면제받는 4종의 장학금이 있고 재학생은 3가지의 등록금 장학금과 어학성적을 토대로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장학금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해외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도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500여 명에 달한다.

조선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과 넓

은 취업문도 학과의 미래를 밝게 해 주고 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197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시작해 대우, 삼성, 한진, 한라 등 대규모 조선소가 설립되면서 현재 세계 선두권의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을 자랑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 조선소의 설계 및 건조분야에서 직접 선박을 제조, 설계하거나 해운회사 등 해양 관련 산업체에 취업해 선박설계 및 건조 기술자로 활동한다. 또 정부기관의 기술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세계 각국의 선급협회(한국지부)나 한국선급협회, 선박안전기술원, 선박해양연구소 등 검사기관이나 연구소로 진출이 가능하다. 졸업생들 중에 교수로 진출한 학생이 5명이고, 한국 최초의 여성 선박검사원 김경희 박사를 비롯해 졸업생 44명중 19명이 삼성과

현대·대우 등 대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귀주 학과장은 “조선 분야는 물론 해양공학의 경우도 미래 해양에너지의 2/3가 바다에 존재해 엄청난 에너지 보고”라며 “인공 섬을 활용한 쓰레기 소각장과 그린에너지, 저탄소 등 세계 각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고 “고교생활 미리 체험해 보세요”

중3생 대상 ‘예비 교실’ 무료 운영  
“사교육 줄이고 선행학습” 큰 호응

광주고등학교가 예비 고교생인 중3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개설한 ‘예비고교 교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방과 후에 운영중인 예비고교 교실에는 광주고 인근 10개 중학교에서 추천받은 25명의 남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매일 1시간씩 고등학교 과정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선수 학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학 중에서는 1일 3시간으로 수업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고교 교실은 전액 무료로, 광주고총동문회에서 지역 인재 육성의 희망을 담아 운영비를 전액 지원했다.

예비고교 교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개인 교습이나 사설학원에 지출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고, 수준 높은 고교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고교 생활 등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고교 교실에 참여중인 박다현(북성중 3년)양은 “광주고 선생님의 열성적이고, 수준높은 강의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쾌적한 강의실과 알찬 프로그램을 개설해 준 광주고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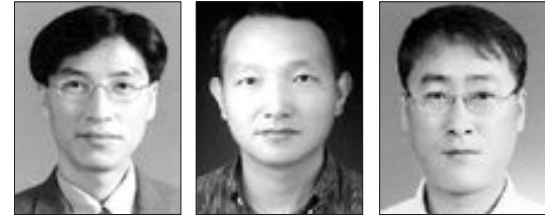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3일 광주고등학교 ‘예비고교 교실’에 참여해 고교 교육 과정을 수업받고 있다. <광주고 제공>

광주고 김용하 교장은 “사교육비를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비고교 교실을 개설하게 됐다”면서 “올해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규모 있는 예비고교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대 김진혁·노열·최홍식 교수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에 선정

전남대 김진혁, 노열, 최홍식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2009 기초연구사업 우수평가자’로 선정됐다.

재단은 올해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참여한 이공계열 교수, 국공립·사설기업 연구원 등 박사급 평가위원 중 높은 전문성과 평가능력을 가진 위인 5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전남대 소속은 김진혁 신소재공학부 교수(화학화공소재), 노열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수리과학), 최홍식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생명과학) 등 총 3명으로 고려대, 충남대와 함께 가장 많은 우수평가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김진혁교수 노열교수 최홍식교수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우수연구리더를 확보, 국가차원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글로벌 인재 육성 농어촌 학생 34명 어학연수

전남도는 글로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도내 농어촌 학생 34명을 상대로 어학연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2번째를 맞는 이번 어학연수에는 도내 시·군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34명과 우수교사 2명이 참여한다. 대상자는 농어촌 학생 영어체험캠프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캠프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로 선발됐으며, 이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한 달간 전남도와 교육 교류협약을 맺은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주관해 미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어학 심화 학습과 현지 학생들과 교류에 중점을 두고 이뤄질 계획이다. /최관일기자 cki@

## 조선대 ‘WISE 캠프’ 광주지역 중학생 60명 참가

겨울방학을 맞아 중학생에게 과학과 수학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캠프가 열린다. 조선대학교 WISE 광주/전남지역센터(센터장 김선아)는 2010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연과학대학 5층 세미나실과 실험실에서 ‘2009 WISE 캠프’를 개최한다.

광주 지역 중학생 6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캠프는 알코올 권총, 차아 모형, 암호 속으로 등의 체험활동의 시간을 갖는다.

참가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WISE 홈페이지(wise.chosun.ac.kr)를 통해 받는다. 문의는 062-230-6846.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인권영상공모전’ 우수·장려상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주최한 ‘2009 인권영상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 및 제주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한 영상접근을 통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박정규(3학년) 학생은 화순에서 우연히 만난 베트남 출신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지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과정을 다

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시골마을 정류장에서 만난 어느 베트남 여인-이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라는 작품으로 우수상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박씨의 작품은 DVD로 제작돼 인권교육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김수성(3학년)·홍현기(3학년)·오태풍(1학년) 학생은 탈북자들의 삶을 조명해 ‘나는 한국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동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 / 학 / 안 / 내

영화가네가있다

메가박스

1관	아바타 (12세)	최고등급
2관	설특홀즈 (12세)	
3관	전우치 (12세)	
4관	걸프렌즈 (15세) / 설특홀즈 (12세)	
5관	전우치 (12세)	
6관	20세기 소년: 제2장 최후의 희망 (12세)	
7관	걸프렌즈 (15세) / 전우치 (12세)	
8관	전우치 (12세)	
9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10관	아바타 (12세)	

• 어프루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전우치 (12세)	
2관	걸프렌즈 (15세) / 여배우들 (12세) / 모범시민 (15세)	
3관	전우치 (12세)	
4관	전우치 (12세)	
5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6관	아바타 (12세) / 크리스마스캐롤 (연세)	
7관	아바타 (12세) / 설특홀즈 (12세)	
8관	2012 (12세) /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9관	설특홀즈 (12세)	
10관	아바타 (12세)	

힐트시탈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 예남점 (무역화관앞편)



1588-7941 상무점연영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 시크릿 (18세)	
2관	전우치 (12세)	
3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4관	모범시민 (15세) / 여배우들 (12세)	
5관	전우치 (12세)	
6관	2012 (12세)	
7관	아바타 (12세)	
8관	아바타 (12세)	
9관	전우치 (12세)	
10관	설특홀즈 (12세)	

300여개 장르 주자장(3시간) • 30분 배정 불가  
• 아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담구장



고려사망 고려관동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미무문 하미스포텍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전우치 (12세)	
2관	설특홀즈 (12세)	
3관	모범시민 (15세) / 아바타 (12세)	
4관	시크릿 (18세) / 전우치 (12세)	
5관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	
6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7관	아바타 (12세)	
8관	아바타 (12세)	
9관	아바타 (12세)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아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션스누자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해 • www.cinusa.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바타 (12세)	
2관	아바타 (12세)	
3관	설특홀즈 (12세)	
4관	설특홀즈 (12세)	
5관	뉴문: 트와일라잇2 (12세)	
6관	닌자어쌔신 (18세)	
7관	모범시민 (15세)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최고의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icinema.co.kr •  
총합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